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품앗이사업

##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

### : 지역화폐 도입을 중심으로

차 성 란(대전대학교 교수)

#### I. 서론

가족에 대한 우리들 생각의 변화는 결혼과 출산, 양육의 기피 현상을 낳고 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이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로 이어져,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로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05년 5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3장 23조에 근거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에는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실이 설치되어 출산, 보육, 노인돌봄 등에 관한 업무를 분담, 수행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문제 해결에 대해 갖는 기본 방향은 출산과 양육 등 가족돌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가치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 가족가치 변화를 위한 방안은 크게 두가지로 대별되어 일-가정 양립이 가능토록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가족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통해 돌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 직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에 있어 가족과 가정생활의 기여를 인식토록 하고자 한다.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은 가족돌봄을 지역사회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일종의 돌봄의 사회화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족품앗이<sup>1)</sup> 역시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008년 공동육아품앗이로 시작하여 2011년도에는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라는 사업명으로 23개 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다. 2012년도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품앗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업운영 센터수가 증가되지는 못한 상태이다. 아직까지는 가족품앗이 사업 정착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사업담당자들은 보다 많은 수의 품앗이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을 동기화시키며, 사업운영 체계의 안정화, 사업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사업의 방향 등을 모색해가는 과정에 있다.

담당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족품앗이 사업이 단기간에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한 것은 부분적으로 품앗이가 갖는 특성에 그 이유가 있다. 미미한 사업 성과는 오히려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가족품앗이는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과 달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체적 활동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또한 참여와 활동이 일회성으로 그

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명은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이다. 본고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는 가족품앗이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품앗이 활동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하며, 사업의 종결이 있을 수 없다. 지역주민들 사이에 공동체적 의식과 이에 기초한 나눔과 배려의 생활문화가 형성됨으로써 사업이 안정화될 수 있다. 자발성과 주체성을 시작으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고 이것이 하나의 생활문화로서 정착되어 지속되어야 하는 일종의 생활운동이며, 그런 점에서 보면 일정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고, 달성해야 할 목표와 성과를 가져와야 하는 ‘사업’이라는 개념이 적합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3년 마이클 린턴에 의해 캐나다 밴쿠버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는 1998년도에 처음 소개되어 IMF 라는 경제위기 극복의 방안으로 활용되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는 지역주민들 사이의 상호작용 활성화를 통한 상호부조, 유대형성, 공동체 의식 공고화 등의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지역화폐를 ‘이용’한다기보다는 지역화폐거래에 ‘참여’하는 하나의 ‘공동체 운동’(최숙자, 2003)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가족품앗이는 자발성과 주체성을 토대로 지역주민들 사이의 다양한 ‘품’의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면, 지역주민간 네트워크와 유대형성에 효과적인 지역화폐에 의한 거래방식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가족품앗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역화폐에 의한 거래방식을 정책적으로 도입,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품앗이 관련 연구는 여성학적 관점, 공동육아라는 보육의 관점, 보육의 사회화와 같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을 뿐이다. 김선미(2010)의 연구는 여성학적 관점에서 열악한 노동시장과 자녀교육을 통한 계급재생산 사이에서 고학력 문화자본을 지닌 기혼여성들이 품앗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김정희(2000)는 품앗이공동육아의 긍정적 경험을 다루고 있지만 핵가족 어머니의 개별적 육아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으로서 생활정치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정혜선(2010)의 연구는 품앗이육아공동체의 참여과정을 구분하고, 참여경험을 통해 사회적 육아로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우민정, 주봉관(2011)은 보육 관점에서 품앗이육아공동체 참여를 통해 지속적 만남, 또래친구관계형성, 정서적 안정감 등 자녀입장과 육아정보, 스트레스해소, 성장기회, 경제적 이익 등 어머니 입장에서의 긍정적 경험에 대해 밝히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품앗이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차성란(2009)의 공동육아품앗이 사업 실천사례를 제시한 연구가 유일하다.

지역화폐에 대한 연구는 지역화폐에 의한 거래를 소비행동의 관점에서 접근한 천경희, 이기춘(2005)의 연구, 지역화폐운동의 참여 요인으로서 지속기간과 학력의 차이를 밝혀낸, 권인천(2003)의 연구 등이 있으며, 김혜진(2010), 유지민(2001) 등은 지역화폐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 지역화폐의 의미, 성격, 과제 등 다소 낯선 개념인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는 글들(김성훈, 2006; 천경희, 2007; 양정하, 2009; 박용남, 2008)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품앗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역화폐의 개념 및 성격을 파악하고, 가족품앗이 사업에 접목시킴으로써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II. 가족품앗이의 개념

품앗이는 ‘품’과 품을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의미의 ‘앗다’의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국립국어원). 품을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노동력이 부족할 때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부조의 기능을 한다. 하지만 두레나 고지, 머슴처럼 계산에 의한 주고받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음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안정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져 왔다. 때문에 개인마다 제공할 수 있는 품의 정도, 효용성 보다는 ‘주고받았다’는 교환행동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

품앗이에서 ‘품’이란 원래 노동력을 의미한다. 하지만 품앗이의 대상은 물질적, 비물질적 유형 모두가 가능하며, 물품이 교환되는 경우의 품앗이라 할 때는 노동력을 교환한다는 의미로서의 품앗이에서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이웃간에 서로 도움이 필요한 유,무형의 것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품앗이는 음식, 옷, 기구, 정보 등 보편성과 구체성이 높은 물적 자원의 교환이 보다 용이하며, 서비스, 관심, 동조 등 특수성과 상징성이 높은 인적 자원의 교환은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렵다. 성공적 사례로 꼽히는 지역품앗이 한발레츠의 경우, 1년간 총 거래건수 13,282건 중 서비스의 교환인 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 1.9%에 머무르고 있다.

<표 1> 한발레츠 연간 지역화폐거래

구분	분류별	백분율(%)	구분	분류별	백분율(%)
농산물	3,598	27.1	음식	219	1.6
가맹점	2,521	19.0	대여	126	0.9
의료	1,281	9.6	기타	105	0.8
재활용품	1,334	10.0	자원활동	1,020	7.7
공정무역	303	2.3	후원/감사	343	2.6
교육/행사	362	2.7	월회비	1,221	9.2
생활용품	309	2.3	급여	286	2.2
품	254	1.9	-	-	-
계			13,282		
총거래 대비(%)			100%		

출처: 한발레츠 2012년 11차 총회자료집(<http://www.tjlets.or.kr>)

전통적 품앗이 행동의 방식은 1 대 1의 교환으로서 이루어진다. 종류가 무엇이든 받은 것에 대한 갚음의 의무감이 지속적인 품의 교환을 가능케 한다. 이에 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품앗이는 1 대 1의 품 교환 보다는 자녀돌봄의 과제에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육아의 성격에 가깝다. 현재 한발레츠, 과천품앗이, 송파품앗이 등 국내의 자발적 품앗이 모임들이 다자간 품앗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공동육아에 가까운 가족품앗이는 육아에 참여하는 공동구성원들 사이에서 돌봄품이나 관련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유대가 형성된다. 이에 비해 다자간 품앗이는 품을 주고 받는 연쇄고리에 보다 많은 이웃이 참여하는

유동적 품앗이 조직을 갖는다. 국내의 품앗이 조직들이 지역공동체 의식을 목적으로 다자간 품앗이를 채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품앗이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여성들에 의해 품이 교환됨으로써 가족원들의 욕구충족에 필요한 가정관리행동에서 품앗이가 이루어지기 쉽다. 가족품앗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가족원들에 의한 품교환 행동’이며, 다른 하나는 가족원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주고받는 호혜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차성란, 2011).

### Ⅲ. 지역화폐

#### 1. 지역화폐의 개념 및 유형

지역화폐는 LETS (Local Exchange & Trading System)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어 그대로 번역하자면 지역교환거래시스템이다. 근대적 의미의 지역화폐는 캐나다의 마이클 린튼이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실업이 문제가 되자 이를 해결하고자 녹색달러를 만들어 유통시켰다. 국가화폐만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순환활동의 경색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대안적 화폐이다. 우리나라의 송과품앗이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던 회원들이 IMF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이를 돕고자 지역화폐를 도입하였다. 이런 점에서 공동체화폐(community currency)로 불리기도 한다.

지역화폐는 회원들이 스스로 화폐를 발행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주고 받는 자율적 경제네트워크이다(西部忠, 2000, 천경희 2007에서 재인용). 그런 점에서 지역화폐는 하나의 ‘제도’이지만 동시에 ‘지역화폐운동’으로 간주된다. 경제, 환경, 사회적 관계, 돌봄 등 기존 사회구조하에서의 가치와 행동양식을 변화시킴으로써 나와 이웃의 삶을 함께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실천 운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능력을 갖고 있으며 돈이 없더라도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역화폐운동의 기본원칙에서 공동체적 성격을 엿볼 수 있다. 공동체를 살리는 운동이면서 생물지역주의(bioregionalism)를 근간으로 하는 환경운동으로 실천되고 있다(박용남, 2001).

지역화폐는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영국을 비롯하여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캐나다, 유럽, 남미, 아시아 등 전세계 2,000여개 이상의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천경희, 홍연금, 윤명애, 송인숙, 2010). 대표적인 지역화폐로는 캐나다의 LETS, 미국의 Ithaca Hours와 Time Dollar, 스위스의 Wir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대전 한밭레츠의 두루, 과천품앗이의 아리, 구미사랑고리은행의 고리 등이 있다. 지역화폐는 가치 산정기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가치를 정하는 것으로 Time Dollar나 Ithaca Hours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른 하나는 국가화폐와 지역화폐가치를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로 LETS, Wir 등이 여기에 속한다(니시베 마코토, 2006).

## 2. 돌봄교환제도로서의 지역화폐

국가화폐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화폐 방식은 서비스 뿐만 아니라 식품, 의료, 소비재 등의 재화도 교환대상에 포함되며, 가격을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교섭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화폐는 자원봉사, 교육, 간호, 돌봄 등 인적 서비스에 한정되어 제공한 서비스를 소요시간으로 일률적으로 평가, 교환하게 된다(니시베 마코토, 2006). 육아품앗이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가족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족품앗이를 지향한다면 국가화폐 방식이 교환대상 품목을 좀 더 다양하게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역화폐의 발행방식으로 보면 ‘지폐방식’, ‘티켓방식’, ‘계좌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폐방식은 인쇄한 지폐를 발행한다는 점에서 비용을 수반하며, 단일 발행주체가 ‘집중발행’하며, 관리를 하게 된다. 티켓방식은 버스표와 같이 상징적인 전표나 칩을 발행하여 서비스 건당 1장의 티켓을 받는 식이다(니시베 마코토, 2006). 계좌방식은 은행통장과 유사한 통장이나 온라인 상의 기록을 하는 방식이며, 등록소에서 계좌거래를 관리한다. 등록소에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지만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에 가상계좌에 익숙치 않은 회원들이 물품 및 서비스 교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

지역화폐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효과는 크게 지역공동체 형성, 돌봄을 포함한 복지서비스,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친화적 지역사회의 넷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양정하, 2009). 첫째, 지역공동체 형성 효과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살아가길 권리가 있다는 철학에 근거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화폐 거래 방식은 유, 무형의 서비스나 물품을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지역주민 사이에 신뢰감을 형성하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 둘째, 지역에 거주하는 이웃끼리의 상호부조, 협동적인 노력으로 아기돌보기, 노인돌봄, 환자간호, 장애우 돌봄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돌봄은 신체적인 돌봄은 물론 정서적 위안, 대화상대, 외출동반, 다양한 종류의 교육지원 등을 통해 의료, 복지, 교육, 먹거리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지역복지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셋째, 대안적 경제체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화폐 거래를 도입하는 일차적인 목적이다. 국가화폐에 의한 경제활동이 침체될 때,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노동력, 지역의 원료 및 상품을 지역주민들이 생산, 판매하고 또 구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내 교환거래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실업자들이 제도권 밖의 노동시장에서 노동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며, 창업의 기회로도 연결된다. 넷째, 지역화폐는 지역사회내에서 지역주민간 거래를 촉진시킴으로써 생산, 유통, 소비과정에서의 자원 및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활성화된 주민간 거래는 재사용,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을 순환시킴으로써 자원절약과 궁극적으로 환경보존에 기여한다. 실제 사례를 통해 지역화폐가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지역화폐에 의한 품앗이 사례

구분	내용	사례
고령자	주간 돌봄, 말벗, 경호, 외출도우미, 원예, 주택수리, 집단장서비스, 편지대필, 가사도우미, 식사준비, 애완동물관리, 간병, 퇴원도우미, 종교, 독서, 방문, 쇼핑, 전화, 교통, 번역, 타이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젊은 어머니가 고령자 돌봄후 받은 타임달러로 보육원의 보육비 지불(메릴랜드)</li> </ul>
아동	방과후돌봄, 영유아돌봄, 가정방문, 맞춤형가정아동, 원아, 학교에 대한 지원, 카페테리아 보조, 교사 보조, 도서관 보조, 감시, 가정교사, 취업가정 자녀가 아플 때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주민이 커뮤니티 서비스에 참가하고 대신 35달러의 식량과 잡화를 13달러에 구입</li> </ul>
저소득층	타임달러로 의료보험료의 25% 할인받음. 식품구입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리케인으로 파괴된 주택을 목공지도 및 자원활동으로 재건축, 댓가를 수년에 걸쳐 자신의 자원활동서비스로 지불</li> </ul>
교육	미술공예, 자격프로그램, 시민권, 권리, 사업운영, 주간돌봄 설립, 스포츠, 외국어, 부모교육, 수공예, 전문코스, 직업전문학교, 평생학습, 주말학급, 십대미혼모대상 교육	

출처:가토 토시하루(2006)를 참고로 작성

#### IV. 지역센터의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실태 및 문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약화된 가족기능을 보완, 지지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그 중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자녀돌봄 부담의 완화이다. 이를 위해 2006년도에 천안시와 울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시범사업과 함께 육아휴게소를 시범운영하게 되었다. 2007년도에는 용산구 센터가 육아정보나눔터를 추가 개소하였다. 2008년도에는 가족품앗이 사업을 10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09년도부터는 전국 센터의 공통사업으로 가족문화사업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2010년도에 천안시센터가 가족품앗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시키는 확대 모형으로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2011년도에 23개 지역 센터는 확대모형으로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9).

서울의 관악구나 동작구, 부산 사하구 경우처럼 가족문화사업팀에서 가족품앗이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센터들은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부모들의 왕래가 많은 상업시설, 병원 등에 외부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는 경우, 학습품앗이 이외에도 부모들끼리 다양한 교육 및 취미강좌 품앗이 운영하는 경우, 지역화폐를 도입, 활용하는 경우, 멘토-멘티 품앗이 프로그램을 통해 품앗이간 교류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 다양한 선진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1). 하지만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많은 센터들이 품앗이 참여자 모집, 품앗이팀 구성, 과중한 업무로 인한 인력부족, 외부 공동육아나눔터 발굴 등 사업 초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차성란, 2011).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컨설팅 결과(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1)를 토대로 나타난 문

제점들을 살펴보면 첫째, 대부분의 품앗이 모임이 학습, 체험 등 센터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어 품앗이의 자발적 참여라는 성격이 발휘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자녀대상의 학습품앗이는 품앗이사업이 지향하는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 확보와 이를 토대로 한 지역사회내 돌봄의 해결을 방해한다. 가족이기주의에 기반한 자녀의 교육적 성취와 사회적 성공을 목표로 품앗이에 참여하는 경우, 가족생활주기가 자녀교육기를 벗어나면 학습품앗이 중심의 가족품앗이에 참여할 동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품앗이팀의 참여자들이 돌아가며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품앗이 참여자의 범위, 교환 가능한 품의 종류가 제한된다. 결국 품앗이활동에 참여한다고 해도 지역내 거주하는 많은 이웃들과 사회적 관계 기회로 확장되지 못하여, 공동체의식 형성에는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다시 요약하면, 가족품앗이에 대한 이해없이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만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품앗이 참여자들 사이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의 자발적이며 주도적인 운영이 아니라 센터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주민들 사이의 공동체 유대를 기반으로 가족돌봄을 사회적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가족품앗이, 나아가 가족친화마을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 V. 지역화폐의 도입

### 1.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지역화폐

지역화폐는 캐나다에서 시작될 때 지역주민의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도입한 것이다. 돈이 없어도 서비스나 필요한 물품을 다른 품앗이 참가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형태의 자원으로도 품을 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대안 이외에도 주민간 상부상조와 공동체의식 형성을 목적으로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화폐를 대가로서의 의미라기보다 이웃간 소통을 위한 구실로 삼는 것이다(신수현, 2008). 대안적 경제와 공동체적 삶의 방식이라는 지역화폐의 두 특성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품앗이에서도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센터의 가족품앗이 사업에 지역화폐에 의한 품교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화폐라는 신용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친밀도가 낮은 센터 내 다른 품앗이 참여자들과의 자원 교환을 촉진시킬 수 있다. 즉, 품앗이와 품앗이 사이의 품교환 활동을 증대시키게 된다. 품앗이와 같은 자원 교환활동에는 주고 받음의 호혜적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즉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야 한다. 단위 품앗이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상대적 친밀도가 높아 이 같은 호혜적 교환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기가 쉽다. 센터 내의 다른 품앗이들 사이에서의 교환은 품앗이참여자들에 대한 안면이나 개인적 정보가 적어, 호혜적 교환의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화폐가 품앗이에 적용된다면, 지역화폐라는 신용제도 그리고 공적 기관으로서 센터에 대한 신뢰가 합해져 다른 품앗이 참여자들 사이에 부족한 호혜적

교환에 대한 믿음을 보완해줄 수 있다. 품앗이와 품앗이 사이에는 낮은 수준에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 있지만 지역화폐거래 등록소로서 센터의 신용, 그리고 제공한 품에 대해 반드시 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다른 품앗이참여자와의 거래도 가능하게 만든다.

둘째, 지역화폐 거래방식은 자녀돌봄의 품교환을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런던의 입스위치 레츠 운영자는 레츠가 아기를 맡겨야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시스템으로 소개하고 있다. 아이를 보는 일은 흔히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한 두번은 부탁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미안한 생각이 들게 된다. 여기에 지역화폐를 적용하면 아이돌봄을 맡기는 경우 미안함을 덜고 편히 맡길 수 있으며, 맡아하는 경우, 친한 사이에서 돈을 받기는 어렵지만 지역화폐 제도하에서 돌봄품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자존심에 손상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차성란, 2011).

셋째, 품앗이간 교환활동을 통해 품교환의 대상자가 센터 전체의 품앗이 참여자들로 확대된다면 지역공동체의식의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공동체의식이 지역주민들 사이에 고양되어 공동체적 삶의 방식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과 공동체적 삶의 방식은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이 해결될 가능성을 높여주게 된다. 가족정책의 당면 과제인 육아의 사회적 분담에 기여하는 방법이 된다.

넷째, 지역화폐 방식을 통해 금전적 지출이 없이도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계경제의 시장의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시장경제의 경기변동은 물가 상승을 부추겨 가족원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 구입 비용을 증가시키며, 가처분소득의 실질적 가치를 하락시키게 된다. 가족품앗이를 통한 재화나 서비스의 교환은 교환가능한 범위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가정관리자는 시장변동에 덜 영향을 받으며, 주체적 자원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곧 가정생활을 통한 가족원들의 삶의 질 확보가 외부환경과 독립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말한다.

다섯째, 지역화폐 방식을 통해 양육기의 가족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현재의 가족품앗이를 양육기 이후의 가족까지 지속 또는 확대시킬 수 있다. 센터에서는 가족품앗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공간과 장난감대여 서비스, 양육에 필요한 정보 및 부모교육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자녀양육이라는 부모들의 관심을 통해 품앗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센터의 사업이 여기에서 머무를 경우, 자녀양육기를 벗어나는 부모들은 자연 가족품앗이 참여의 동기를 잃게 된다. 지역공동체가 형성되어 자녀돌봄 뿐만 아니라 가족돌봄으로 확대되고, 가족들이 살기좋은 가족친화마을로까지 이어지려면 참여자들이 전생애주기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화폐는 품앗이와 품앗이간 품교환과 유대형성을 도와줌으로써 품앗이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시켜 줄 수 있다. 지역화폐를 통해 전생애주기의 다양한 가족환경을 지닌 주민들이 가족품앗이 활동에 참여한다면, 자녀돌봄 이외에도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주고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위와 같은 가족품앗이 참여자 범위 확대는 자녀돌봄, 나아가 노인돌봄의 사회적 분담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자녀양육기를 벗어나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한 중년기 참여자,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하여 돌봄제공이 가능한 노년기 참여자들이 가족품앗이의 지역화폐방식을 통해 이웃주민의 자녀를 돌보거나 노부모를 돌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웃에게 제공한



자녀돌봄, 노인돌봄의 품은 자신이 보호를 받아야 할 노년기에 다시 돌려받음으로써 노후생활에 대한 일종의 보험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미즈시마 테루코가 개설했던 ‘볼런티어 노동은행’과 유사한 방식이다(가토 토시하루, 2006). 우리는 전생애기간 동안 노동능력과 시간에 과부족을 경험하게 된다. 다수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화폐 거래방식을 이용하여 노동능력과 시간이 부족하거나 여유가 있을 때 서로 교환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시기, 질병이나 사고 등 불의의 사고, 노년기의 생활불안을 보완,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시간은행처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수준에 이르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유대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과 자녀돌봄만이 아닌 가족돌봄을 주고 받기 원할 것이며,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가족친화마을의 이상적 모형에 다가설 수 있다. 물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족품앗이 사업에서 지역화폐 거래에 대한 공신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일곱째, 지역화폐는 아버지들의 가족품앗이 참여를 좀 더 용이하게 할 것이다. 개별 품앗이 팀들이 양육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품앗이에 아버지들의 참여기회는 매우 제한된다. 취업주부가 주축이 되어 주말에 이루어지는 체험프로그램 품앗이에서 아버지들이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센터에서 전체 품앗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캠프프로그램에 아버지가 참여하는 경우 등 아버지들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족품앗이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구조를 감안할 때 아버지들이 가족품앗이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기는 힘든 상태이다. 지역화폐 방식을 도입하게 될 경우, 산발적으로 품을 제공할 수 있는 아버지들이 지역화폐 방식을 통해 품앗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맞벌이가정의 아버지들은 취업으로 인해 품제공이 쉽지 않은 아내들과 함께 품 제공량을 늘려줌으로써 자녀돌봄시 다른 품앗이 참여자들로부터 혜택을 받기가 쉽게 된다. 품제공의 사례로 아버지들은 센터의 품앗이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직업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의 강의, 견학지로서의 직장 연계, 다양한 스포츠 활동의 강사 및 리더, 사진, 컴퓨터,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취미 교육 등의 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지역화폐 거래 중 일정 비율을 국가화폐로 지불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맞벌이가정의 자녀돌봄을 가족품앗이로 해결할 수 있다. 취업주부는 주중 가족품앗이 활동에의 참여가 어렵고, 비취업주부와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노동시간이 길어 자녀돌봄과 관련된 품앗이 활동에 품을 제공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역화폐에 의한 거래방식을 도입할 경우, 그리고 지역화폐 거래 중 일정 비율을 국가화폐로 지불가능하도록 원칙을 정하면, 취업주부는 자녀돌봄을 다른 품앗이 참여자로부터 제공받고, 제공받은 품의 일정 부분을 금전적으로 지불할 수 있음으로써 자녀돌봄 품앗이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품앗이를 통한 자녀돌봄은 영리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비교할 때, 품앗이 참가자들이 각자 부모임(parenthood)을 통해 돌봄을 교환하기 때 문에 더 큰 신뢰를 할 수 있다. 이는 취업주부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녀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품앗이를 통한 돌봄을 더 선호케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 2.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에의 지역화폐 적용<sup>2)</sup>

### 1) 단위 센터내 지역화폐 거래

지역화폐에 의한 거래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품앗이 참여자들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가족품앗이 활동 빈도와 교환되는 품앗이의 다양성으로 가늠할 수 있다. 육아품앗이 외에도 교육품앗이, 다양한 물품 및 돌봄서비스가 교환되고 있는 센터인 경우, 지역화폐 거래를 위한 필요조건을 갖춘 경우라 할 수 있다. 지역화폐 거래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센터는 이처럼 가족품앗이가 활성화되어 있거나 품앗이 사업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담당자의 경력, 가치관, 사업추진력 등에 따라 도입 가능성은 달라진다. 담당자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근무경력이 쌓여, 센터의 사업방향 및 기본철학에 대해 이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품앗이 사업의 방법론 적용에 영향을 주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품앗이 사업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을 때 공동체 의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말한다. 또한 일반적인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은 일회기 또는 수회기 정도로 단위 사업이 마무리되지만 가족품앗이나 지역화폐는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나아가 확장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업 특성은 사업담당자의 업무추진역량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난 2011년도에 23개 센터가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지만 모든 시범사업센터에서 지역화폐 거래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역화폐 거래는 물품거래부터 시작하는 것이 용이하다. 특히 자녀돌봄과 같은 돌봄서비스의 경우, 돌봄을 주고 받는 두 당사자간 요구되는 신뢰 수준이 물품거래의 경우보다 높기 때문이다. 거래 관리는 통장을 이용하는 방법과 카페나 홈페이지상에 계좌를 정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IC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단위 센터에서 시행하기에는 참여인원이 적어 운영이나 비용면에서 효율성이 낮다. 전국의 지역센터 여러 곳에서 지역화폐를 좀 더 쉽게 도입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계좌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일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품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참여자간 신뢰가 견고해지고, 품앗이를 통한 이익을 체험하게 되면 교육품이나 돌봄서비스 거래로 확대될 수 있다. 돌봄서비스로 거래가 확대되면 영유아로부터 초등학생, 노인돌봄에 이르기까지 대상과 돌봄 서비스 종류에 있어 매우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다.

### 2) 거래지역의 확대

지역화폐에 의한 가족품앗이는 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거래되는 물품과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거래의 성사 가능성도 높아진다. 서울 및 경기도 지역처럼 구 단위 센터끼리 지리적으로 크게 떨어져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외의 지역화폐 거래 방식

---

2) 차성란(2011) 연구의 일부임.

을 도입하고 있는 유사기관의 참여자들과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품앗이가 안정적인 사업으로 정착되기까지의 좀 더 긴 소요시간과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이라는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하겠지만, 인접 센터간 품앗이는 장기적으로는 전국 센터를 연결하는 품앗이망으로 구축되는 단계까지 진행될 수 있다. 일종의 타임달러 형태로서 전국 센터간 연계가 될 수 있으면, 품앗이는 도시와 농촌, 사무직과 기술직, 중산층과 빈곤층, 노인 세대와 육아기에 있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서로의 상이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품종류의 다양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역내 이웃에게 제공한 자녀돌봄으로 축적한 지역화폐를 거주지역을 달리해 살고 있는 손자녀의 돌봄을 위해 자녀세대에게 기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중년기 여성이 이웃의 어린 자녀를 돌보아주고, 대가로 받아 모아진 지역화폐를 자신의 노년기 돌봄 필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공한 돌봄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정부의 제도로서 보장해주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될 필요가 있다.

## VI. 지역화폐 방식의 가족품앗이 사업 정착을 위한 정책부문의 지원

지역화폐는 1990년대 들어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영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 보급되고 있으며, 우리와 비슷하게 90년대 말 지역화폐가 도입된 일본의 경우 일본 전국에 걸쳐 170여개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0여개 정도가 주민조직,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도이다(천경희, 2007). 지역화폐에 대해 알고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혀 모른다’는 경우가 50.5%였으며, ‘들어본 적은 있다’가 34.5%, ‘조금 또는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경우가 13.1%. ‘경험해본 적이 있다’는 경우가 1.9%수준에 머물렀다(차성란, 2011).

품앗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주도로 운영되어야 지속성이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요하는 활동은 아니다. 하지만 현대의 산업사회는 지리적 공간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공동체를 와해시켜 농촌지역에서조차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의 가족정책적 관심과 예산의 지원을 통해 공동체의식과 공동체적 삶의 방식의 불씨를 살려내야 하는 이유이다. 지역화폐를 가족품앗이 사업에 도입하여, 품앗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책적으로 고려 또는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단기성과가 아닌 중장기적 성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화폐는 참여자의 자발성, 신뢰, 친밀감이 형성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운영 경험에서 볼 때 가족품앗이는 물론 지역화폐와 같은 일종의 시민운동은 자발성, 회원간의 신뢰, 친밀감 등이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또한 지역화폐 거래방식은 가족품앗이 사업이 정착된 일부 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우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거주 주민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가족품앗이는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 친밀감, 유대관계가 있을 때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리더십이 있는 주민 중에서 인력을 채용

하여 가족품앗이 사업을 사업담당자와 함께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지역주민 보조인력은 주로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요구를 파악하며, 센터와 지역주민과의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사업담당자는 행정, 회계, 자원연계 등 보다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역주민이 주민주도적 자치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한다.

셋째, 가족품앗이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돌봄이 제공된다는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가족품앗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동안의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가족품앗이 참여자들이 제공하게 되는 돌봄품은 센터에 대한 신뢰와는 다른 측면이다. 센터가 품앗이 참가자들 사이에 매개 역할을 하면서 돌봄의 질과 품교환의 호혜성 등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써 안심하고 돌봄품을 주고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센터가 품앗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교환되는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고, 돌봄에서의 안전수칙, 지역화폐거래의 기준과 실행에의 개입, 정부가 가족정책서비스 전달체계인 센터를 지원하고 있다는 신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이웃들 사이의 익명성, 서로에 대한 낮은 신뢰 등 현대사회의 부족한 사회자본을 보완하는 기능을 센터가 함으로써 지역화폐를 통한 자녀돌봄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넷째, 전국 센터로의 가족품앗이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매뉴얼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하다. 차성란(2011)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품앗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23개 센터의 경우 이전부터 가족품앗이 사업을 자발적, 주도적으로 운영해온 몇 명의 담당자를 제외하면, 담당자들조차 가족품앗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 사업을 진행해가며 스스로 깨우쳐가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 사이에서 사업의 진행이나 방향에 대한 협의도 없어, 각 센터에서 사업담당자가 자신의 역량과 가족품앗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품앗이 사업을 운영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섯째, 사업담당자의 안정적 고용 및 근무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가족품앗이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시작과 끝이 있는 다른 사업과는 특성을 달리한다. 가족품앗이는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일상적인 가족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종의 가족자원경영 활동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가족자원경영 활동은 가족이 형성되는 순간부터 부부의 사망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시점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가족품앗이 활동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사업담당자가 별도 사업으로서 사업에 대한 확정이나 사업비 교부여부 등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가족품앗이 업무를 처리해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가족품앗이 사업을 활발하게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센터의 사업담당자와의 유대관계를 필요로 한다. 담당자가 자리이동이 잦거나 퇴사를 하게 되면, 품앗이활동 지원을 위해 구축한 주민과의 유대관계도 함께 사라져, 신규 담당자는 반복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주민과의 친밀감을 갖는 단계에서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 VII. 나가는 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품앗이 사업은 정부의 저출산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사업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도에 공동육아품앗이 사업에서부터 시작하여 2011년도부터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을 23개 지역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업은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돌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주민들에 의해 서로의 돌봄요구를 품앗이로 해결할 수 있으려면 주민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인적, 물적 자원이 동원될 수 있는 자원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 가족원들을 위한 일상적 가정자원관리활동에서 필요한 자원들을 서로의 배려와 나눔을 통해 충족되는 자원망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유지되던 1차 지역사회로서의 특징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품앗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공동체의식과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되살림으로써 오래동안 머물며 살고 싶은 가족친화마을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라진 1차 사회의 특성들을 되살려 내는 일을 하고자 한다. 가족품앗이 사업이 정착,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동기를 부여하고 품앗이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역화폐가 사업활성화의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와 성공적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가족품앗이에 지역화폐를 도입함으로써 첫째, 가족품앗이 사업 초기단계에서 부족한 품앗이 참여자들 사이의 사회적 자본을 지역화폐라는 신용제도가 보완해줄 수 있다는 점이다. 2012년 5월 현재 중앙을 제외한 147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주로 도시나 도농복합지역에 위치해 있다. 지역 주민들 사이의 친밀감, 유대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것이 산업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주민들과 함께 가족품앗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 사이의 낮은 수준의 호혜적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방안이 요구된다. 지역화폐는 풀뿌리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가족품앗이 활동에 적용하기가 용이한 제도이다.

둘째, 지역화폐에 의한 가족품앗이는 가족품앗이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의 범위, 교환되는 품의 종류 등을 크게 확대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과 공동체적 삶의 방식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품 교환이 가능해짐으로써 전생애주기 단계의 가족, 취업, 비취업 등 다양한 가족, 아버지 참여 다양한자녀양육기 부모 이외에도 중노년기의 지역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참여하는 주민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품앗이 활동의 증가에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만큼 지역사회의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으로 가족친화마을에 한발자국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가족품앗이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민들에 의해 운영되어야 지속성을 지닐 수 있는 사업적 특성을 지닌다. 하지만 전국 센터에서 가족품앗이 사업이 원활히 시작,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가족품앗이 사업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첫째,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하며 둘째, 보조적 입장에서 측면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센터에 예산을 지원하지만 단기성과를 재촉하지 말고 주민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어 사업이 정착될 때까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사업 안정화에 필요한 조건들 예를 들어 사업담당자가 안정적 고용상태에서 주민들과의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용 및 근무환경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가족품앗이와 지역화폐, 가족친화마을만들기 등은 2차 지역사회의 특징을 갖는 현대사회에서 사업을 출발하기에 쉽지 않으며, 사업이 안정화되기까지 장기간을 요한다. 하지만 이웃 일터를 포함하여 삶의 질을 추구하는 많은 전세계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활동이다.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또하나의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주민들의 내면적 요구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민들의 요구를 놓치지 말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복지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가토 토시하루, 윤전우, 제진수 역(2006). 에코머니. 서울:이매진.
- 김선미(2010). 대구지역 고학력주부의 품앗이 육아 경험과 사회적 의미:근거이론 접근방법으로. 경북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 석사논문.
- 김성훈(2006). 지역화폐 : 지역주민 스스로 돈을 발행하자. 환경과 생명, 50, 71-78.
- 김정희(2000). 핵가족 어머니 육아와 품앗이 공동육아. 한국여성학, 16(1), 95-129.
- 김혜진(2010). 지역화폐운동의 욕구만족도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논문.
- 니시베 마코토, 이홍락 역(2006). 우리끼리 만들어서 쓰는 돈. 돈키호테.
- 박용남(2001). 한발레츠-나눔과 보살핌의 공동체실험, 녹색평론, 60, 9-10월호, <http://www.greenreview.co.kr/>
- \_\_\_\_\_ (2008). 사랑의 경제와 지역화폐운동. 녹색평론, 102, 11-31.
- 양정하(2009). 지역화폐운동의 성격과 과제.
- 우민정, 주봉관(2011).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품앗이육아공동체 참여과정에서 겪는 긍정적 경험과 어려움.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5(3),147-168.
- 유지민(2001). 저소득 실직가정의 가계소득 향상과 지역복지 공동체구성을 위한 기술, 도구은행. 복지동향, 80-82.
- 정혜선(2010). 영유아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품앗이 육아공동체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9(3), 429-441.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9). 돌봄네트워크 구축(공동육아나눔터)시범사업 실적보고.
- 차성란(2009).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동육아품앗이 사업 실천사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6), 189-201.

- \_\_\_\_\_ (2011).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성과발굴 및 운영모델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 보고서.
- 천경희(2006). 공동체화폐 운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경험과 소비자주의적 함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7). 지역화폐운동의 실천적 의미와 향후 전망. 울산발전, 17, 57-67.
- 천경희, 이기춘(2005). 지역화폐운동의 소비문화적 의미 연구-한밭레츠 참여자의 소비행동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4권 4호, 593-611.
- 천경희, 홍연금, 윤명애, 송인숙(2010). 윤리적 소비. 시그마프레스.
- 최숙자(2003). 도시공동체와 지역주민운동에 관한 연구 : ‘반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1).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례.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http://www.korean.go.kr)
- 한밭레츠 2012년 11차 총회자료집(<http://www.tjlets.or.kr>)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품앗이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 : 지역화폐 도입을 중심으로

김 소 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저출산·고령사회는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입니다. 얼마 전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되었고,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도 주요과제의 하나로 채택해 정부-민간 차원에서 장기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가족돌봄의 사회적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가족친화적사회환경, 특히 지역사회 조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된 이후 가족친화기업 인증, 컨설팅 시행,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기업의 변화를 유인하는 정책이 다양하게 시도된 데 반해 가족친화마을 사업은 상대적으로 더딘 양상을 보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와 가족품앗이 활동, 2011년 전국 8개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 등이 진행돼 왔습니다.

발표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품앗이가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화폐사업과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품앗이가 육아활동에 한정된 경향을 보여 자녀 성장 후 활동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지역화폐 도입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김선미 외(2011)의 연구에서도 육아품앗이에 한정된 가족친화마을 사업은 그들의 가족생활주기 성장과 더불어 지속성을 갖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면서, 육아품앗이를 넘어서는 성인품앗이에 대한 고려를 제안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육아중심의 가족품앗이가 자칫 사적 친밀감에 기반해 폐쇄적이고 일시적 활동에 머무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기 힘든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호 신뢰와 유대관계의 형성이 전제되고, 보다 개방적인 형태의 지역화폐사업과의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한계에 대한 보완도 가능할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시도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맺기 위해 함께 고민해볼 점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 성공의 핵심은 발표자도 지적했듯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 지속을 위해 ‘사람’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역화폐와의 연계가 가족품앗이 활동 대



상과 범위를 확장해줄 수 있지만 그 또한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가 전제될 경우에 가능합니다. 결국 사람들을 어떻게 동기화하고, 조직화할 것인지, 참여자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역량을 키워가기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할 것인지가 먼저 모색되어야 합니다.

그와 함께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담당자와 참여자의 관계 재설정도 필요합니다. 센터 담당자들이 참여자를 사업대상이 아닌 주체로 보는 시각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담당자들이 가족품앗이 참여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느라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품앗이 참여자가 요구와 자원의 조정을 주체적으로 해나갈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품앗이 참여자들,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주체 발굴을 위한 실무자 역량 강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하고,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마을만들기, 지역화폐 운동과 차별화된 접근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건강가정지원센터 기존 사업들과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됩니다. 사업 담당자와 참여자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 사업 전개가 어렵고, 방향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가상화폐 사업인 'e-품앗이'를 시범운영 중이며, 물품, 서비스, 재능 기부 등을 가상화폐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꽃꽂이, 원예, 십자수, 외국어 교육부터 청소, 장보기, 영·유아 돌보기, 청소년·노인 상담 등 활동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사업의 중복성, 고유성 부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은 가족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전개해 너무 방만하거나 나열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방식의 가족품앗이 사업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의 하나로 '구체적인 사업 매뉴얼 개발과 제공'이 제안되었습니다. 일정정도 공감은 가는 지점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센터나 실무자의 경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동일한 시행착오를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현장의 담당자들을 만나보면 가족품앗이 사업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충분치 않은 상태로 사업을 해나가느라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정착을 위한 가이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칫 표준화된 매뉴얼이 문서로만 제공될 때 또 다른 오류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친화마을조성의 목표와 방향, 가족품앗이와 지역화폐 연계의 의미,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와의 관련성 등 사업의 가치와 방향성을 이해하는 실무자교육과 워크숍, 타 기관 방문 등 다른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고 학습하는 방안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김선미 외(2011)의 연구에서 8개 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자들은 가족친화마을 비전워크숍을 통해 자신들이 추진해 온 사업이 모두 가족친화마을을 지향하는 것이었다는 성찰과 안도감을 갖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보다 세심하게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실행해 가면서 발전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게 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가능한 지역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을

해 가족품앗이 사업을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지역화폐 거래를 위한 인프라와 지역사회 유대가 형성된 지역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서 다음해 학회에 다시 모여 한 단계 더 진화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볼 기회가 주어지길 희망합니다.

### [참고문헌]

김선미 · 이승미 · 노영주 · 송혜림 · 조영희(2011). 지역 돌봄 활성화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여성신문(2012). 품앗이로 지역공동체 살아난다-지역화폐 매개로 이웃과 소통하고 신뢰 쌓아.  
2012년 4월 13일자.  
경향신문(2012). 은평, 물품 · 재능 ‘e-품앗이’에 지역화폐 쓴다. 2012년 2월 12일